

인천 주택보급율 107%, 자가점유율은 60% 그쳐

인천의 주택 보급률이 107.6%에 달해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 소유의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가구 비율인 자가주택 점유율은 60.6%에 그쳐 자가 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유필우의원(열린우리당)에게 국감 자료로 제출한 '2005년도 시·도별 주택보급률'에 따르면 인천지역 주택보급률은 가구수 67만2천500가구, 주택수 72만3천600가구로 107.6%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치(105.9%)를 상회하는 것으로, 서울시과 6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였다.

특히 같은 수도권내 서울(89.7%)과 경기(100.8%)에 비교해서도 보급률이 8~9% 포인트 정도 높고, 정부가 지난해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책정한 2012년도 수도권 보급률 112.4%에 가장 근접해 앞으로 인천은 주택보급률면에서 가장 빨리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주택보급률은 지난 90년 72%에 그쳤으나 95년 89.9%, 2000년 98.1%, 2004년 103.5%로 지속 상승해 15년만에 30% 포인트 이상 확대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빠른 보급률 확대를 보여왔다.

주택보급률은 주택 수를 보통가구(혈연가구)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으로 주택 수는 다가구를 1주택으로 계산하고 빈집을 포함해 산정된다. 보통가구는 총 가구에서 1인, 비혈연, 외국인, 집단거주 가구 등을 뺀 것이다.

하지만 전체 가구중 실제 자기 주택에서 살고 있는 가구 비율인 자가주택 점유율은 가구수 82만3천가구, 주택수 49만8천600가구로 60.6%에 그쳐 주택보급률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인천지역 자가주택 점유율은 지난 90년 51% 수준을 보인 뒤 95년 57.4%, 2000년 59.1%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에따라 인천지역은 주택공급이 증가해 보급률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실제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자가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 의원은 “자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구입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택지내 공급 주택 무주택자 우선 공급비율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이와함께 과도한 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액 이상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는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도 자가주택 점유율은 60% 선을 유지하고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주택자금 지원 확대, 다주택 보유억제 세제정책 등의 영향으로 자가 점유율은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입력: 2006-09-19 14:34:03